

##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 기반 조사인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수준 1)은 약 350만 명(전체 성인의 8.2%)으로 추정
- 교육부는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AID 커리어 점프패스) 등 성인 대상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

교육부는 8월 19일(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행)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표본조사이다. 성인의 디지털 기기·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현황 파악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23년 측정 도구 개발과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에 본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조사 영역은 ① 디지털 기본 활용, ② 디지털 정보활용, ③ 디지털 의사소통, ④ 디지털 안전, ⑤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로 구분되며,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측정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경험 실태, 디지털 활용 태도 등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의 경우 실제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측정도구\*를 개발·활용하였다.

\* (시나리오 예시) ‘지도 앱 활용하여 길 찾기’, ‘기차표 앱을 활용한 예매’,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 주문’, ‘카카오톡을 이용한 정보 확인’, ‘은행 앱을 활용한 송금’ 등

<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경험이 부족하며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전체의 8.2%(약 350만 명)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전체의 17.7%(약 758만 명)로 나타났다.

< 수준별 결과 >

구분	수준 정의	비율(%)(추정인구)	
수준 1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8.2% (3,505천명)	25.9% (11,093천명)
수준 2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17.7% (7,587천명)	
수준 3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21.4% (9,182천명)	
수준 4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52.8% (22,665천명)	
총계		100.0% (42,940천명)	

전체 대비 ‘수준 1’ 인구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서,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성인은 10명 중 2명(23.3%),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은 10명 중 3명(34.6%), 월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성인은 10명 중 3명(25.9%)이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청년층에 해당하는 18~39세 인구의 경우 디지털 문해능력이 부족한 ‘수준 1’ 성인은 전체 18~39세 인구의 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 수준 1 비율 >

구분	특성별 전체 대비 수준 1 성인 비율
성별	여성(10.0%) > 남성(6.3%)
연령	60세 이상(23.3%) > 40~59세(1.3%) > 18~39세(0.8%)
지역	농산어촌(12.7%) > 중소도시(8.6%) > 서울 및 특·광역시(6.1%)
학력	중졸 이하(34.6%) > 고졸(6.3%) > 대졸 이상(0.9%)
소득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25.9%) > 300~500만 원(4.9%) > 500만 원 이상(1.2%)

## < 실태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 정보검색’이 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이 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가 70.8% 등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40.4%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자주 또는 종종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18세~39세는 8.9%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40세~59세는 34.8%, 60세 이상은 77.7%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

아울러, 성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전체의 29.9%) 중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2.1%로 나타났다. 디지털 문해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빠른 세상 적응 및 자신감 향상’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불편 해소’(70.9%), ‘새로운 일 시작 준비(이직, 창업, 취업)’(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교육부는 전체 대비 ‘수준 1’ 성인 비율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서,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대상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2024년 신규 도입되어 현장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문해교육 접근성이 낮은 성인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쉽게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 문해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 지역 내 장소에서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25년 5개 지역 운영)

※ (한글햇살버스 학습자 인터뷰)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키오스크를 조작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간 적이 많은데, 이번 학습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실제 일상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기술에 대한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24년 현장실습 사례) 하나은행,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은행, 영업장 등에서 에이티엠(ATM) 활용법,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이용법 등 지원

셋째, 저소득층 성인 및 노인(65세 이상)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30세 이상 성인 대상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AID 커리어 점프패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 (지원규모) 저소득층 성인 약 85,000명, 노인 약 8,000명, 디지털 약 10,000명  
(지원액) 1인당 연간 35만원

넷째,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025년 평생학습도시 디지털 프로그램 예시) (경기 광명시) 디지털 윤리교실 / (경북 고령군)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기 / (서울 광진구) 알기 쉬운 디지털 금융교육 등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를 계기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개요  
2.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결과 세부내용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진영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638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책임자	주무관	김유진 (044-203-6385)
		담당자	센터장	서영아 (02-3780-9752)
			센터원	한경아 (02-3780-9751)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소개

- (목적)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능력수준' 측정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문해교육 지원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근거) 「평생교육법」 제19조, 「통계법」 제18조 등
- (조사 주기/방법) 3년 / 가구방문 면접조사(태블릿 기반)  
※ 1차 조사 : '24.9.~'24.10. 조사, 25년 발표
- (대상) 18세 이상 성인(전국 표본 1만여명)
- (통계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
- (결과 공개) 국가문해교육센터(<https://www.le.or.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등



□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영역

- 5개 평가영역<sup>①</sup>디지털 기본활용, <sup>②</sup>디지털 정보 활용, <sup>③</sup>디지털 의사소통, <sup>④</sup>디지털 안전, <sup>⑤</sup>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실태조사, 개인배경설문

<디지털 문해능력 측정 영역 및 정의>

측정 문항 영역		정의
① 디지털 기본활용	디지털 기기 기본기능 조작능력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능력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를 편집하여 간단한 콘텐츠(사진, 동영상, 생활문서 등)를 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
②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정보 검색 및 조직 능력	다양한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조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정보 평가 능력	디지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판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③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와 감정을 올바른 태도로 전달, 해석, 교환하여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④ 디지털 안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폭력, 유해 콘텐츠 접근 및 배포, 저작권 침해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
⑤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생활, 행정업무 처리와 같은 공공생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구분

- 4개 수준(수준 1 ~ 수준 4)으로 구분되며, 수준 1은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활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가장 낮은 능력 수준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구분>

구분	수준 정의	구분	수준 정의
수준 1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	수준 3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수준 2	기본적인 디지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수준 4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별 현황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수준별 결과>

구분	수준 정의	비율(%)(추정인구)	
수준 1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8.2% (3,505천명)	25.9% (11,093천명)
수준 2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17.7% (7,587천명)	
수준 3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21.4% (9,182천명)	
수준 4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52.8% (22,665천명)	
총계		100.0% (42,940천명)	

※ 통계표의 숫자는 반올림 또는 절사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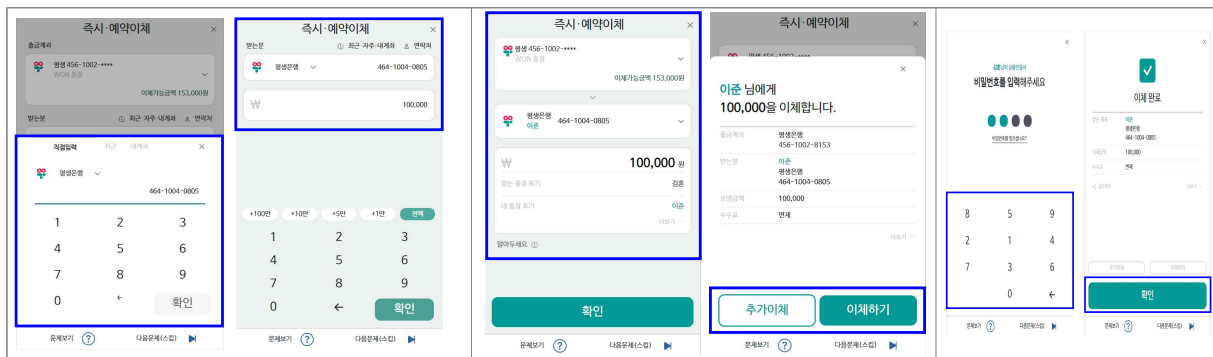
□ 디지털 문해능력 영역별 측정 결과

- 5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점수 환산 결과 총 100점 만점 기준
  - ① 디지털 기본활용 72.7점, ② 디지털 정보활용 70.8점, ③ 디지털 의사소통 76.1점, ④ 디지털 안전 70.5점, ⑤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53.3점

[참고]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에서 활용된 시나리오 기반 측정도구 개요

- 주어진 시나리오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

(예시) 은행앱을 활용한 송금하기 문항



## □ 응답자 특성별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응답자 특성별·수준별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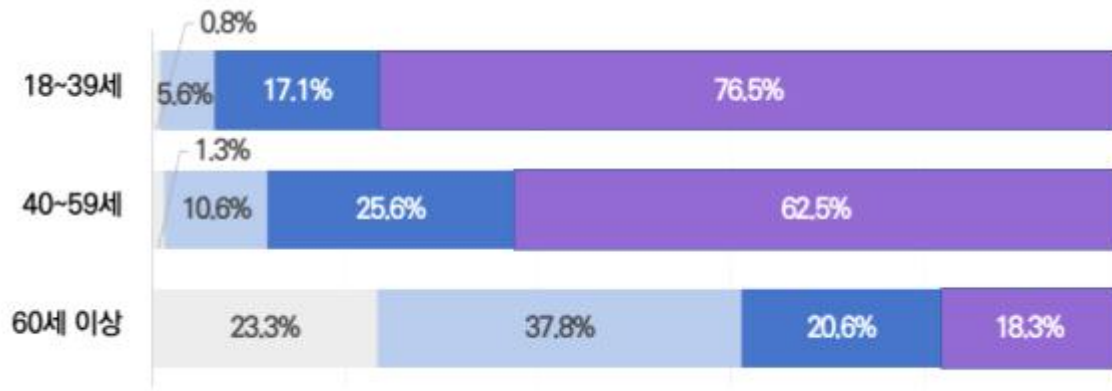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성별	남성	6.3	16.5	21.3	55.9
	여성	10.0	18.9	21.4	49.7
연령	18~39세	0.8	5.6	17.1	76.5
	40~59세	1.3	10.6	25.6	62.5
	60세 이상	23.3	37.8	20.6	18.3
지역	서울 및 특광역시	6.1	13.8	24.4	55.7
	중소도시	8.6	19.8	17.9	53.7
	농산어촌	12.7	22.9	21.6	42.7
학력	중졸 이하	34.6	49.5	9.3	6.6
	고졸	6.3	19.2	25.3	49.3
	대졸 이상	0.9	6.2	22.4	70.5
월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5.9	37.1	18.1	18.9
	300~500만원 미만	4.9	16.1	24.1	54.9
	500만원 이상	1.2	8.5	21.1	69.2

※ 통계표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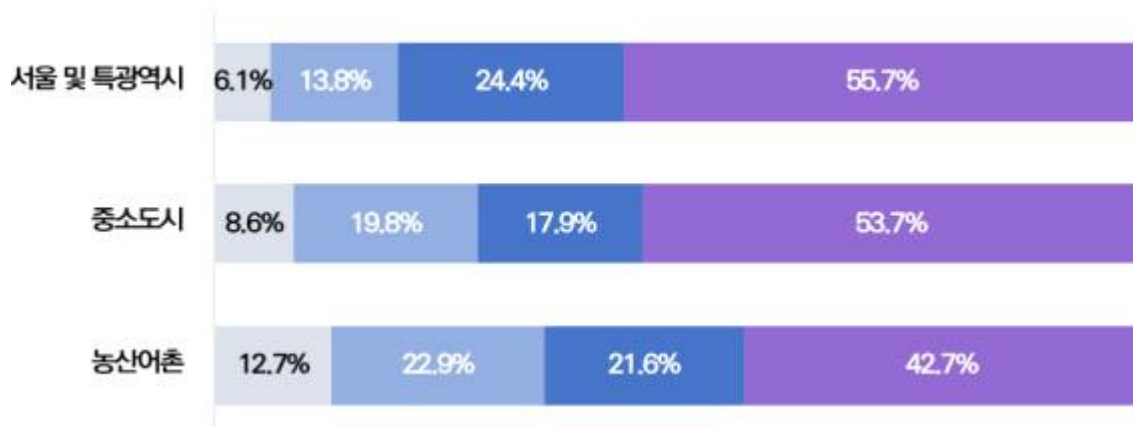
### ① 성별 -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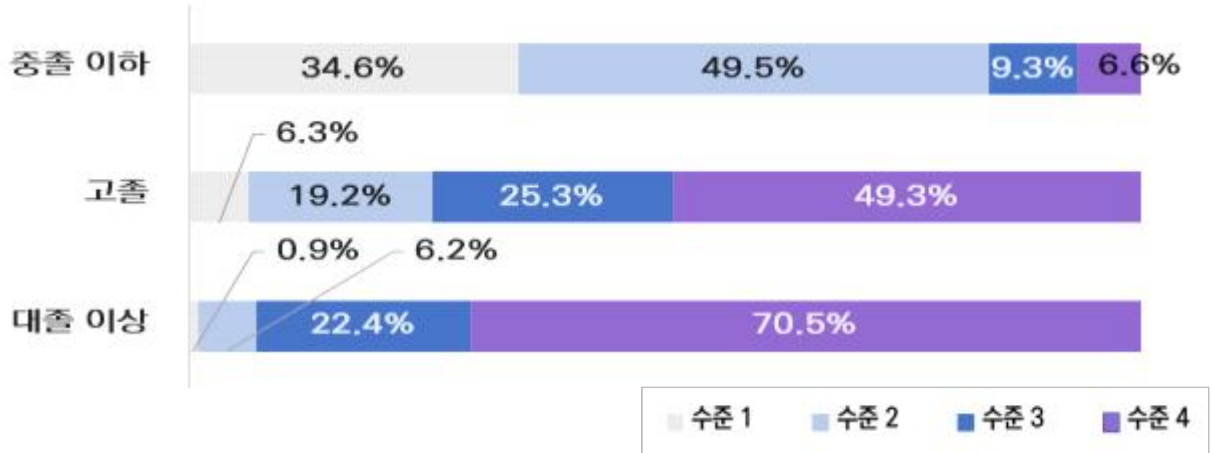
## ② 연령별 -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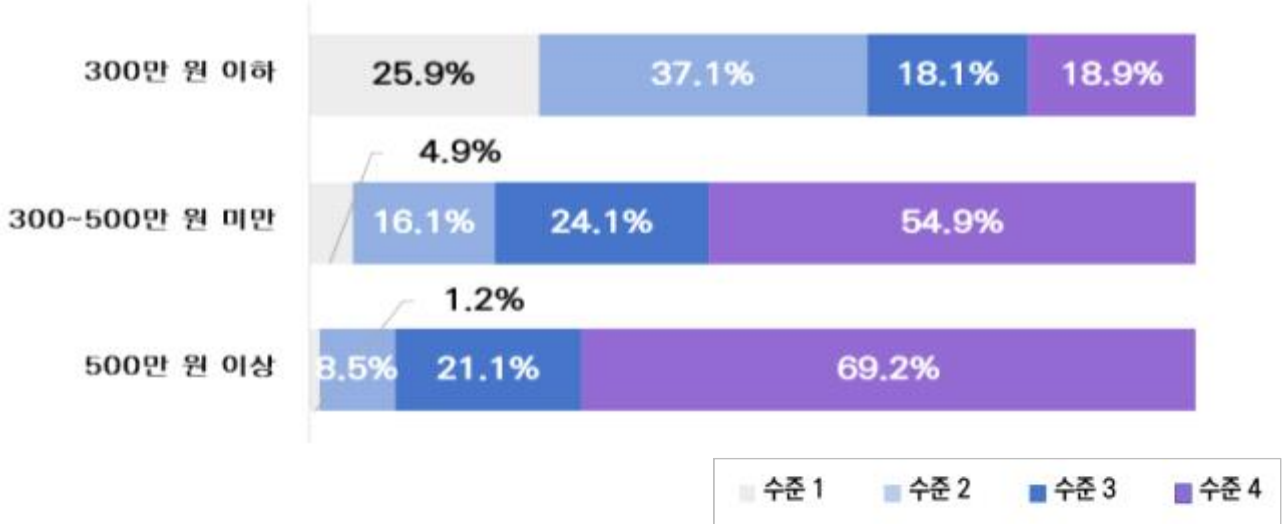
## ③ 지역별 -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④ 학력별 -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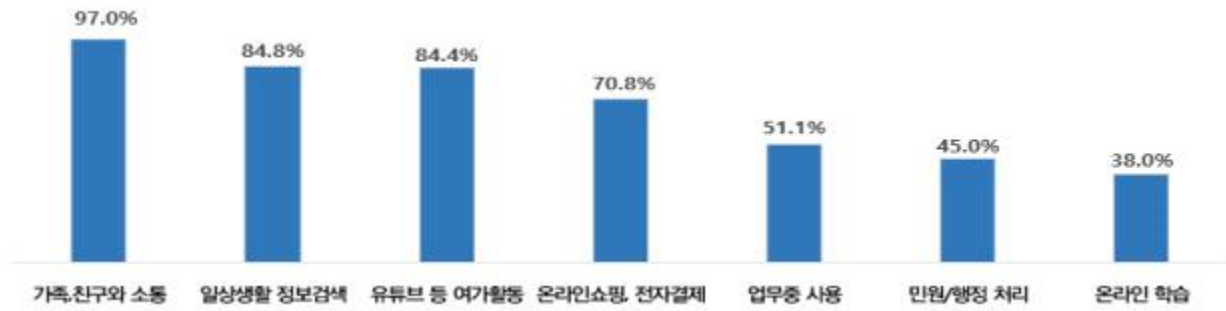


⑤ 월 가구소득별 -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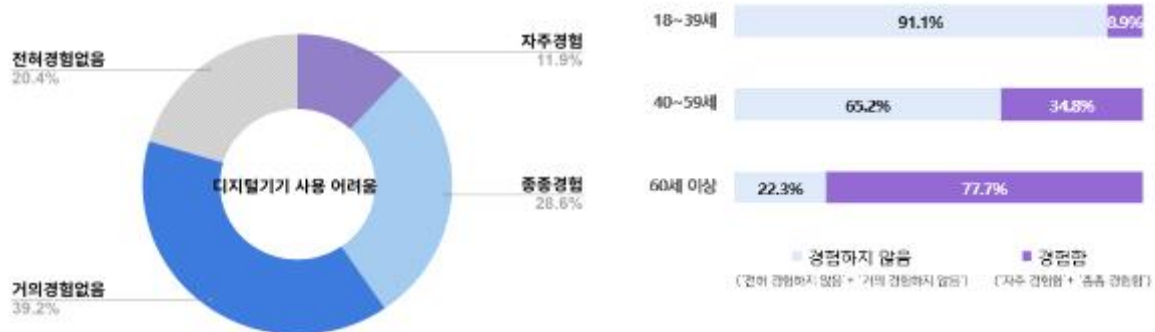
## □ 디지털 문해능력 실태조사 결과

### ① 디지털기기의 일상생활 활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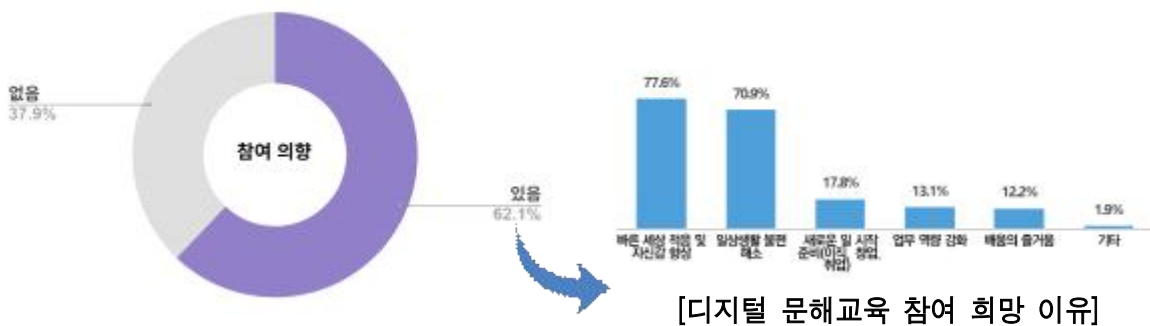
※ 5점 척도(①전혀 이용 안함, ②거의 이용 안함, ③가끔 이용 ④자주 이용 ⑤매우 자주 이용) 중 “③가끔 이용+④자주 이용+⑤매우 자주 이용” 응답 기준

### ②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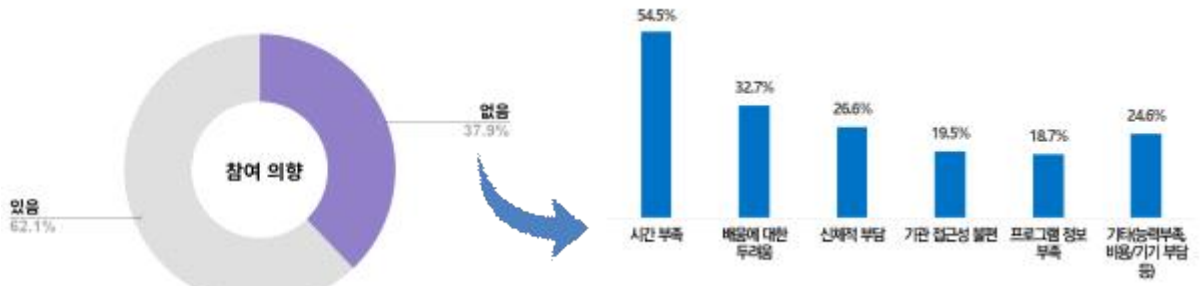
[연령대별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경험]

### ③ 디지털 문해교육 참여의향 - 참여 희망 이유(복수응답(2개 선택))



[디지털 문해교육 참여 희망 이유]

④ 디지털 문해교육 참여의향 - 참여 어려움 이유(복수응답(2개 선택))



[디지털 문해교육 참여 어려운 이유]

⑤ 희망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내용(복수응답(모두선택))

